

포덕교화기본원리

대
순
진
리
회

포덕교화기본원리

布德

教化

基本

原理

차례

2、	1、	三、	3、	2、	1、	二、	一、
수 _守	훈 _訓	훈 _訓 회 _誨 와 수 _守	충 _忠 · 효 _孝 · 예 _禮	사 _社 회 _會 국 _國 가 _家	병 _病 원 _冤 상 _相 생 _生	해 _解 원 _冤 상 _相 생 _生	연 _沿 혁 _革 개 _概 요 _要
칙 _則	회 _誨	칙 _則	예 _禮	가 _家	세 _勢	생 _生	요 _要
.....
16	14	14	10	9	8	8	5

一、沿革概要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九天上帝)이다。

천도(天道)와 인사(人事)가 상도(常道)를 어김으로써 천지신명(天地神明)들이 모여서 삼계(三界)의 혼란과 인류와 신명계의 접맥(劫厄)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구천상제께서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天啓塔)에 내려 오셔서 천하를 대순(大巡)하시다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시고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天地度數)를 바로잡아 삼계를 개벽(開闢)하고仙境(仙境)을 열어 비접(否劫)에 쌓인 신명과 재접(災劫)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전주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임하셔서 三十년을 계시다가, 이조 고종 八年 신미년 九月 十九일에 전북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강씨 가문에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 강세(降世)하시니 존호(尊號)가 증산(增山)이다。

강증산(姜儼山)사께서는 이조 말엽의 극도로 안락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도탄기(塗炭期)에 당하여 해원상생(解冤相生)의 도리(道理)를 종교적 법리(法理)로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사회적 지상낙원(地上樂園)이 실현되어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四十년간

에 걸쳐 인세에 선포하시고 구천상제님의 위로 化天하셨다。

강증산성사의 종통을 계승받아 종단을 창설하신 도주께서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 조씨 가문에서 탄생하시니 존호는 정산鼎山이시다。

도주조정산께서는 부조 전래의 배일사상가로서 반일은동에 활약하시다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고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시여 동지들과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도력으로 구국제세의 뜻을 정하시고 입산 수도 중 강성상제로부터 종통 계승의 계시를 받으셨다。

도주 조정산께서는 구천상제님의 계시에 따라 망명 九년만에 귀국하시여 전국 명산 각지를 두루 다니시며 수도를 마치시고 왜정 당시 一九二五年 四월에 전북 구태인에 도장을 건설하시고 종단 무극도를 창설하셨다。

을유년 八월에 광복을 맞이하여 부산에 도본부를 설치하시고 도명을 태극도로 개칭하여 내려 오시던 중 도주 조정산께서는 一九五八年 무술 四월 二十四일에 유명으로 종통을 현도전에게 전하시고 화천하셨다。

유명에 의하여 종통을 계승받으신 도전께서는 一九六九年 四월에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도중앙본부를 건립하고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여 우금에 이르렀다。

요 略

대순진리회는 상도를 일곱 삼계를 바로 잡아 달라는 천지신명들의 호소에 의하여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내려 오셔서 상도를 일곱 천지도수를 정리하시어 광구천하 하시려고 해원상생의 도리를 인계에 선포하시어 이에 수반된 대공사를 四十년에 걸쳐 마치시고 화천하셨으며、

도주께서는 부조 전래의 배일사상가로서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도력으로 구국제생의 뜻을 정하시고 입산 수도중 구천상제님의 계시로 종통을 계승받으셔서 구천상제님의 유자인 해원상생의 도리를 종교적법리로서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로 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종단을 창설하신 것이다。

一九五八年 四월 二十四일에 도주로부터 유명으로 종통을 승계받으신 도전께서는 一九六九年 四월에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도중앙본부를 건립하셔서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一一、해원 상생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이다.

전세계 인류의 화평(和平)이 세계개벽이요 지상낙원이요 인간개조이며 지상신선이다. 인류가 무편무사(無偏無私)하고 정직과 진실로서 상호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조의 도덕심이 생활화된다면 이것이 화평이며 해원상생이다.

1、병세

전 인류는 병들어 있다. 병든 환자는 명의(名醫)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구천상제께서는 삼계대권을 주재(主宰)하시고 멸망지경에 도달한 전 인류를 광제(廣濟)하려고 인세(人世)에 대강(大降)하셔서 병세의 원인을 진단하시고 해원상생의 도리로서 치료방법을 상세하게 교운(敎運)·교법(敎法)·권지(權智)·예시(豫示) 등 천지공사(天地公事)로 인계에 선포하시고, 상계(上界)의 천존제위에 임어(臨御)하셔서 삼계를 통찰(統察)하시고 인자와 의자를 도우신다. 상제께서는 세무충(世無忠) 세무효(世無孝) 세무열(世無烈) 천하의 대병(大病)이라 하시고 병유(病有)대세(大勢)하고 병유(病有)소세(小勢)인데 소병(小病)에는 홍유약(或有藥)이나 대병(大病)에는 무약(無藥)이라 하시고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진리에 의한 종교적법리가 대병의 약이라고 하셨다.

2、사회국가

인류의 소집단을 사회라 하고 가족속의 대집단을 각기의 국가라고 한다. 국가 사회란 충(忠)·효(孝)·열(烈)을 강령으로 하여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으로써 이루어진 가족속의 집단이다.

국가 사회가 이루어진 그 근본이 없어진다면 모두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원(元)·형(亨)·이(利)·정(貞)은 천도지상이요, 인(仁)·의(義)·예(禮)·지(智)는 인도지상이라고 옛부터 성현들이 이르러왔다. 국가 사회가 안정되고 전인류가 화평하려면 음양합덕(陰陽合德) 만유조화(萬有造化) 차제(次第)의 도덕인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부모에게 효도, 나라에 충성,

가정화목、 서로간에 信義 신의가 있어야 한다。

구천상제께서는 어느 족속의 인류이건간에 밋고 고움의 차별 없이 한결같이 다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류는 상제님의 손으로 한 동기 형제를 이루었으니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평하여야 한다。

3、 충·효·예

국가는 古代 고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조국이다。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사회 문화 도덕은 역사를 따라 그 발전사를 갖고 내려온다。

우리 역시 이것을 계승받아서 종교로 삼고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켜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여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한 조국 땅에서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한 혈육동기 형제들이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내려온 조국은 우리들의 국가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들 집이다。

우리는 조국인 우리들의 국가를 아끼고 혈통을 같이한 우리 형제 자매들로서 로가 사랑하며 화합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인류는 조국 없이 생존할 수 없고 조국 없는 인류가 있을 수 없다。 조국은 나를 낳은 부모보다도 중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도 忠則盡命 충즉진명이요 孝則竭力 효즉갈력 이라고 하였다。

충성이란 국민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 도덕을 준행하며 말은 바의 임무에 충실하고 상호 이해로써 융화단결하여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다。

효도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자식된 도리를 행하는 일이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뼈와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님들의 산고

의 고통이며 어렸을 때 마른자리 갈아가며 키워주신 정성과 남의 자식 못지않게 해주려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키워주신 그 은덕은 河海 하해와 같다。

부모님들의 은덕을 만분지 일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각기의 온갖 정성을 다 하여 봉양하고 마음 편안하게 하여 드리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대한 報恩 보은일 것이

다。

예도는 禮道 오류중의 하나로 夫婦有別 부부유별이란 남녀간의 예도가 구별되어 있어서 남자는 남자의 예도를 행하고 여자는 여자의 예도를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남녀간의 예도는 구별할 수 없이 서로가 상실하고 있다。

천기하강 天氣下降 지기상승지기의 地氣上昇之氣 생성 生成 변화지리로 變化之理 만물이 化生 화생하고 춘·하·추·동 사시지기로 四時之氣 만물이 生長 생장 育成 육성하듯이 天道 부덕으로 婦德 구별된 남녀간의 예도로써 인류의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충·효·예도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진리이니 이것으로서 修道 수도 修行 수행의 訓典 훈전을 삼고 힘써 닦고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결론 結論

구천상제께서 四十年간에 걸쳐 행하신 바를 기록한 서적이 典經 전경이다。

전경에 孝 교운·法 교법·權 권지·例 예시 등으로 緣連 연운을 좇아 여러 방편으로 행하신 일이나 말씀이 충·효·예도로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불치의 대병을 완치한다는 理 이리이다。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解冤相生之理 해원상생지리인 우주 자연의 法理 법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화목으로부터 나아가서는 사회·국가·세계 平和 평화와 인류 融合 화합을 이룩하는데 있으니 서로가 원망함이 없이 이해하고 信條 신용화단결을 제일의 信條 신조로 한다。

三、훈회와 수칙^{訓誨 守則}

1. 훈회^{訓誨}

一、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良心} 사심^{私心}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敢行}하게 됨이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天性}을 되찾기에 전념^{專念}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라。

二、언덕을 잘 가지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은 도심의 자취라。 나의 선악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 잘 되는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음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화와 복은 언제나 언덕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을 특별히 삼가하라。

三、척을 짓지 말라。

척은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를 거스르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인즉,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양순^{良順}겸손^{謙遜}사양^{辭讓}의 덕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을 짓지 않도록 하라。

四、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반함이니 은혜를 받던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으로써 천지보은의 대의를 세워 인도를 다하고, 보명과

안주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여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 보본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 포덕으로써 제도를 다하고, 생활과 노직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하라.

五、남을 잘 되게 하라.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의 기본원리요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다.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 하라.

2. 수칙

- 一、국법을 준수하며 사회도덕을 존행하여 국민복에 기여하여야 함.
- 二、삼강 오륜은 음양합덕·만유조화 차례 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휼 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
- 三、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임과 혹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무함.
- 四、언동으로써 남의 착을 짓지 말며,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지 않음으로써 남이 나의 덕을 모름을 쾌의치 말 것.
- 五、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布 德 教 化 基 本 原 理

發行日 一九七五年 五月 二十四日

發行所 大 巡 眞 理 會 教 務 部

住 所 서울特別市城東區中谷洞一四三의一

電話 四四五一一七七 四 番

四四六一一七二一 二 番